어린이 책꽂이

▲하늘에 새긴 이름하나=몽고족의 침입으로 최대위기를 맞은 고려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끈기를 힘있는 필치로 엮어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대장경을 만드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민족혼을 일깨워 준다.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미안해 정말 몰랐어=조금은 특별한 친구들과 사귀며 겪는 사건과 마음의 변화를 그려낸 창작동화집. 운동만 하는 친구, 결손가정의 친구, 혼혈인 친구, 공부 못하는 친구 등 나와는 다르거나 왠지 싫은 아이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벽을 허무는 이야기 8편이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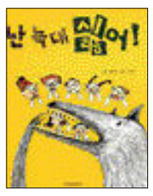
〈어린른이·8천원〉

▲출렁출렁 아홉물결 바다이야기=캐나다, 영국, 핀란드, 세네갈, 이라크, 러시아 등 아홉 나라의 바다에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를 모았다. 태평양, 대서양에서부터 발트해, 바다로 이어지는 호수 등을 배경으로 물개의 요정인 셀키, 인어공주, 바다의 노인과 용왕 등 신비한 생명들이 등장한다.

〈국민서관·1만2천원〉

▲행복을 전하는 편지=외롭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들쥐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편지 한통을 받게 되면서 자신감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동화. 힘들고 외로워하는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정의 실천방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시공주니어·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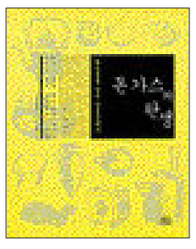


▲난 늑대 싫어=유치원 연극발표회에서 친구들에 비해 키가 유난히 크다는 이유로 하고 싶었던 염소와 전혀 다른 늑대 역할을 맡게 된 주인공 어린이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린 생활동화.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좌절과 분노에 대한 묘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길벗 어린이·8천500원〉

돈가스 통해 본 일본 근대 풍경

돈가스의 탄생 오카다 데쓰 지음



'돈가스'는 카레라이스, 고로케와 함께 흔히 '일본의 3대 양식(洋食)'으로 꼽히는 음식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향수병에 걸릴 때 떠올리게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돈가스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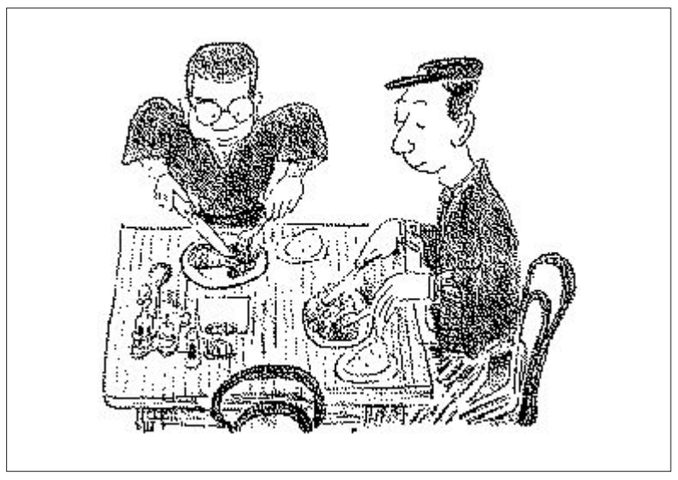
요즘은 위세가 예전만 못하지만 돈가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양식'의 대명사로 군림해 왔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살펴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음식 관련 전문 집필가인 오카다 데쓰가 쓴 '돈가스의 탄생'은 '일본 양식의 왕자' 돈가스를 거울 삼아 들여다본 일본 근대사의 풍경이자 일본 생활사(史)다.

저자는 일본문화를 '모방문화'로 전제하고 '돈가스' 역시 '모방'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흉내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수많은 일본인의 지혜가 응축돼 있는 음식이 바로 '돈가스'라는 설명이다. 일본인들은 7세기 후반 덴무 천황이 '살생과 육식을 금지하는 칙서'를 발표한 이래 1천200여년간 '공식적으로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이 족쇄를 푼 건 메이지 천황이었다. 천황은 1872년 서구인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 육식을 해금하고 서양음식을 보급키로 했다.

서양 음식 흉내내기 떠나 창조적 '모방문화'의 정수



돈가스 등 일본 양식은 일본의 모방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1930년대 일본 양식집의 모습.

하지만 국민들은 쉽사리 '고기'와 친숙해 질 수 없었다.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서민들은 전골, 스키야키 등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통해 거리감을 좁혀갔고, 육식 해금 이후 60년이 지난 1929년 '돈가스'를 만들어냈다.

돈가스는 일본 고유 음식이 아니다. 서양의 커틀렛(cutlet)이 그 원류다.

저자는 커틀렛이 돈가스가 되기까지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말한다. 쇠고기가 돼지고기로 바뀌고, 접시에 돈가스만 담던 데서 양배추채를 곁들이는 형태로, 그리고 밥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일본 음식'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서양요리를 처음 받아들인 건 높은 양반들이었지만 일본요리와 서양요리를 절충해 새로운 스타일의 양식을 만들어낸 것은 서민들의 창의력이었던 셈이다.

이 책에서 일본인의 모방문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음식은 '단팥빵'이다. 빵은 16세기에 일본에 전해졌지만 오랫동안 밥을 주식으로 해 온 시민들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외국 음식'일 뿐이었다. 하지만 1874년 서양의 빵을 일본 전통의 술로 반죽, 발효시키고 일본인 입맛에 길들여진 단팥을 넣어 일본식으로 바꾼 '단팥빵'이 탄생하면서 일본은 '빵왕국'이 되었다.

저자는 일본인들이 외래 음식이 전래될 때마다 탐욕스러울 만치 허겁지겁 받아들이고 동화해 나가는 이유를 '그 땅에서 난 것을 최고의 기술로 요리해 더 맛있게 먹는다'는 '신토불이' 기술이 수년간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또 '일본인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잡식성이 강한 민족이라 여타 국가처럼 고유의 민족음식을 형성할 여지가 없었던 것'도 일본에 양식이 뿌리 내린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돈가스 등 일본 음식에 대한 설명이 다소 장황하기는 하지만 일본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뿌리와 이파리·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액자는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제4요소

그림보다… W.H 베일리 지음

전시회를 관람하다 보면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림을 둘러싼 액자가 더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신통치 않아 보이는 그림이 액자 덕에 걸작으로 보이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뉴욕에서 30년간 액자 전문가로 활동해온 W.H 베일리는 '그림보다 액자가 좋다'를 통해 이같은 액자의 비밀을 풀어냈다. 그에 따르면 액자는 물감, 붓, 캔버스 이외에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제4의 요소. 책의 장정과 그림의 액자가 비슷한 기능이지만 책의 장정은 책을 펼치기 전에 한 번 볼 뿐 책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액자는 그림을 감상할 때 항상 같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 책은 단순한 틀의 기능을 넘어서 작품의 일부가 된 액자, 화가들이 직접 모은 물건으로 만든 재활용 액자, 유명 화가들이 손수 만든 명품 액자까지 다양한 액자들을 소개하고 제작 당시의 시대 배경도 설명한다.

〈아트북스·1만7천원〉

/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라틴 아메리카 영화 1백년사 들춰보기

라틴아메리카… 장용석지음

쿠바,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제3 세계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낯선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영화가 있다. 할리우드 영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라틴아메리카 영화는 생소하게만 느껴지지만 그 생소함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라틴 아메리카 시네마 다이어리'의 저자 장용석은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을 만큼 공을 들인 우리나라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영화에 관한 기록'이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영화 1백년사와 놓칠 수 없는 250여 컷에 이르는 방대한 사진자료들을 일반인들도 만날 수 있게 됐다. 발아기인 190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라틴아메리카 영화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상세히 소개하고 영화의 주제, 음악 등에 대한 관찰로 또 다른 영화 미학을 선사한다. 〈문학들·1만5천원〉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박경리의 '생명의 아픔'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에세이 '생명의 아픔'(이룸 펴냄)은 그의 문학이 추구하는 것이 '생명성'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토지'에서는 '생명은 존엄하다'라는 삶의 보편성을 보여주었다.

'생명의 아픔'은 그가 15년 동안 원주에서 생활하면서 체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신이 살던 집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이야기에서는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깨닫게 한다.

보다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 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인간중심적인 사고, 또는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삼아온 근대정신은 여전히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침을 흘리며 자연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정복자의 모습이다.

이 책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 알고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중요한 사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생명체들, 그리고 자연을 생각한다.

작가는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하고 있다. 인간들이 '더욱 잘 살아보려고' 지구를 파괴할 때 결국 죽기 위해서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우리가 한 동안 잊었던 선조들의 지혜를 깨우쳐 주기도 한다. 가령 우리 어머니들이 일자무식이어도 들꽃조차 함부로 꺾지 말라고 하신 것과 우리나라에는 꽃병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을 상기시킨다.

지구의 주인은 모든 생명체

대신 밥상보, 경대보, 베갯보, 방석, 아이들의 신발이나 버선, 의복에 곤충·동물을 수놓았다. 절이나 상여를 꾸밀 때도 꽃종이로 하였다. 장독가나 담장 아래에 분꽃, 접시꽃, 봉선화를 심어 꽃과 아주 친숙했음도 일깨워주고 있다.

이밖에 까치밥, 새참 때의 고수래 등도 들짐승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생명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재도 그렇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선보인 분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관심했다.

박경리의 '생명의 아픔'은 다른 생물 앞에 인간은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한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임을 말해주고 있다.

미생물과 지렁이나 땅강아지, 메뚜기, 개구리, 곤줄박이, 부엉이, 독수리, 오소리, 여우, 호랑이, 그리고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걸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뿐만 아니라, 인간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지구의 주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되길 염원하고 있다.

강경호 〈시인〉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부동산컨설팅(주)
투자상담 ☎681-0453, 핸010-4628-5454
(금호동 마재우체국 옆)

첨단 바이C부근 자연녹지 5,000평
- 차량접근 양호/분할 가능/수완-첨단도로공사중
- 용 도:공장, 골프연습장, 자동차학원 등 기타
- 매매가:평당 70만원

서구 마륵동 약450평
- 자연녹지/투자최상지역/인접지 아파트 공사중
- 용 도 : 전원주택, 가든
- 매매가 : 평당 120만원

완도 대신리 자연농원 4만평
- 차량접근 / 개발 가치 양호
- 복합 자연농원 개발 가능
- 매매가 : 평당 5만원

완도 고금도 별장부지 약4,000평(분할가)
- 농가주택, 펜션, 전원주택단지
- 해안도로접/토목공사완료/추가 6,000평 매입가
- 미림-고금간연륙교상판공사중
- 매매가 : 평당 20만원

영암 삼호 석산부지 1만5천평
- 대불산업단지 인접/해역사거너편
- 용도 : 석산 활용이후 아파트 부지 가능
- 매매가 : 평당 25만원

첨단 상가건물 (3층)
- 빅마트 옆 먹자골목 (식당, 콜싸롱 사용중)
- 보증금 6천/월380만원 (용지2억원)
- 매매가 : 6억원

금호동 상가건물 (3층)
- 대지 115평/건평 270평 (지하 1층, 지상 3층)
- 보증금 1억 월 400만원
- 매매가 : 6억8천만원

불로동 상업지역 나대지 약225평
- 4차선 도로접, 현주차장
- 용 도 : 웨딩빌딩 최적지
- 매매가 : 평당 750만원

서구 서창동 주거지역 답 1,660평
- 2차선 도로접/전원주택, 대형가든/투자적지
- 평당 80만원(조정가)

영암 신북 농공단지 공장 2,300평
- 신북 전방공장 옆 공장 1,300평
- 현재 페인트 가공공장 운영중
- 매매가 : 평당 30만원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산(남향,명당형)
- 신북-금정방면 2차선도로접
- 약 3,012평/1,000평 분할가능
- 평당 5만원

북구 지야동 자연녹지 약935평
- 고속도로 진입로부근
- 투자유망지구/첨단산업기지 및 아파트단지형성
- 평당 60만원(조정가)

기 타
- 내방동 해태 APT 00동 00호 1억3천만원(조정가)
- 운암동 낙천대 APT 00동 00호 2억2천만원(조정가)

• 경/공매 투자 상담 환영 (공장, 상가, 대지 등) •

하이랭크 컨설팅
☎(代)383-5221, 핸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 구.상무대입구)

▶구해드립니다
병원, 학원, 공장,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 주유소등 각종투자용 부동산을 구해드립니다.

▶팔아드립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및 급매물건을 팔아드립니다.

◎병원, 학원부지
• 상무지구 120평 평당 1,000만원
• 상업용지 600평 평당 950만원
• 상무지구 670평 평당 900만원

◎창고및회사사옥
• 마륵동 생록 770평 평당150만원
• 마륵동 생록 400평 평당250만원
• 상무지구 500평 평당 670만원

◎식당 및 오락실부지
• 운천저수지옆 주거지 180평 평당 220만원
• 서구 2,000평 매매가 12억 장기투자로도 적합함

◎공장 용지
• 광산구 4,000평 자연녹지 평당65만원
• 마륵동 생산녹지 1,000평 평당145만원
• 삼거동 관리지역 1,200평 평당35만원

◎건물 매매
• 상무지구 보증금 3억 월 700만원
• 상무지구 보증금 10억 월세 2,500만원 매매가 58억

◎건물 매매
• 보증금 32억 월세 3,000만원 매매가 78억
• 보증금 3억 월세 1,000만원 매매가 17억

◎땅투자
• 상무지구 1,300평 평당900만원
• 매월동 2,300평 평당120만원
• 풍암동 보전녹지 2만평 평당3만5천원

◎땅투자
• 광산구 자연녹지 4,000평 평당68만원
• 벽진동 1,500평 평당75만원(군보지역)
• 벽진동 1,700평 평당65만원(군보지역)

◎부동산투자(컨설팅)
• 100억 투자 월2억 수입
• 70억 투자 월 1억5천만원 원 수익

◎골프연습장적합한땅
• 약2,000평 평당 195만원

※부동산 광고를 통해 매도를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오.

★ 24시간 물건접수 및 상담환영 ★
전화상담 011-609-5221 팩스접수 383-5221
메일접수 leechulgil@hanmail.net

元 전원공인중개사
www.전원중개사.com
송정:송정역 건너편 945-0005, 010-4629-0989
운남:운남동 삼성아파트 상가내 951-3000, 016-681-3210

토지매도
◎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관리지역 도로접 402평 현 잔디밭-전원주택, 공장적합 평당 8만5천원
◎ 광산구 장록동 평동공단방향 2차선접 213평 현 식당, 평당 160만원(모든 업종가)
◎ 함평군 해보면 문장소재지 인근 자연녹지 2,380평, 현 잔디밭 포장도로 양면접, 평당 8만원(조정가)
◎ 서구 서하동 2차선 도로접 일반주거지(투자최적) 240평 평당 90만원(조정가)
◎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관리지역 임야 1,530평(묘지,투자적합) 평당 2만2천원(조정가)
◎ 광산구 송정동 시립병원~송정역사이 6차선 대로접 50평 평당 300만원
◎ 나주-송정간 대로접 폐교부지 3370평(숙박시설,일반음식점,사우나,학원 등 적합) 급매 평당 45만원
◎여수시 돌산대단위 택지앞 해안도로접 980평 평당80만원 급매
◎북구 풍림동, 생산녹지 1210평 평당70만원(급매)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60미터 계획도로접 1210평 평당80만원
◎광산구 송정동 구.광산경찰서앞 시장입구 사거리코너 338평 평당 350만원
◎광산구 신가동 하남대로변 824평 평당320만원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관리지역 1379평 평당8만원(급매)
◎광산구 도산동 카이스트빌 앞 하나로마트옆 115평 매200만원
◎광산구 도산동 도산역앞 344평 평당350만원
◎광산구 도산동 4차선도로접 471평 평당 250만원
◎광산구 도산동 파랑새예식장부근 70여평 평당150만원
◎광산구 송정동 사랑병원앞 6차선도로 코너 평당400만원
◎북구 생용동 일반주거지역 162평(주택포함) 평당 80만원
◎전북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일원 300-23만평까지 물건 다량보유 평당 7만원~130만원까지
◎광산구 송정동 5일시장입구 신협 건너편 124평 평당400만원
◎광산구 신촌동 4차선 대로접 52평 평당150만원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2차선 대로접 620평 평당8만원(현 잔디밭)
◎광산구 소촌동 계획도로접 180평 평당70만원
◎광산구 복룡동 대로접 932평 평당170만원
◎서구 풍암동 77평 제이아트뒤 평당 370만원(급매)

상가매도
◎ 북구 용봉동 1231-20, 대지 56평, 건평 132평, 대로변 4층상가 2000년 준공 1,2,3층 상가임대, 4층 주택 매매 4억5천만원-교환가
◎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 부근 상가 지하1층, 지상2층 매매 13억
◎ 광산구 송정동(일반상업지구) 대지52평(건평43평) 매매 2억5천만원, 임대가능
◎남구 백운동 6차선 도로접 3층 건물(A.Bitfcl) 병원적합 2005년 12월 준공 매 11억

주상겸용 주택
◎ 북구 임동 대지 56평 2층단독-카센터 적합 매 1억 1천만원
◎북구 오치동 도로접 4거리코너 3층 겸용주택 대지65평 건평 100평 매매가 2억

★투자자 대모집(소액 대 환영) ★
• 지리산 일원 펜션부지 다량 보유 •

한 일 지 도 (주)
☎(代)529-1409, 핸010-2466-1409
(지산동 법원앞)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 체크된 부분은 타사와 비교 환영

이번에 새로 나온 광주시 책은
① 광주시 전지역 그린벨트 2차 해제 198곳 수록
② 해제된곳 안에 전지역 계획선 수록
③ 해제된곳 안에 자연녹지, 공원, 주차장 용지 수록
★ 남구 효천 역세권 1, 2지구 바운다리 수록
★ 동구 용산동 택지개발 경계선 수록
★ 동구 월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내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선교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선교동 벤처타운 부지 수록
★ 광주 무안간 고속국도 자세히 수록, 서광산I·C수록
★ 광주시내 전지역 APT 입구, 세대수, 평형 수록
★ 하남2지구내 APT 배치도 수록
★ 수완지구 전지역 APT 배치도 수록
★ 남구 지석동 빛고을 APT 배치도 수록
★ 광산구 산정동 골든뜨레빌 APT 배치도 수록
★ 백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동구 지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광산구, 옥동, 월전동, 평동공단 추가 수록
이외, 지적분할 및 신구 APT, 용도지역, 계획선 등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표기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광주·전남 전지역
실시출력으로 지적도 부분별 맞춤제작 합니다 (확대·축소가능)

<현재 판매중인 지번도 목록>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함평군, 영광군

한 일 지 도(주) 〈운암주유소뒤〉
☎ 527-6310, 핸 011-9433-6310